

'내일채움' 광주·전남 3분의 1이 중도포기

중소기업 취업 해지자 광주 351·전남 488명...해마다 늘어 정부적립 사업장 광주 1044·전남 977곳 뿐...전국 5% 수준

중소기업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내일채움공제' (이하 내일채움)에 가입한 광주·전남 취업자 3분의 1은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채움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기 위해 기업이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4년 신설한 뒤 올해 9월 첫 만기자(5년 만기)가 나왔다.

27일 중소기업직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사업이 시행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수는 광주 351명, 전남 488명이었다.

같은 기간 가입자(광주 1309명·전남 1639명) 수에 대한 해지율은 광주 26.8%·전남 29.7%로 나타났다. 내일채움 가입자 3명 중 1명은 만기 원금을 타보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 셈이다.

광주·전남지역 내일채움 해지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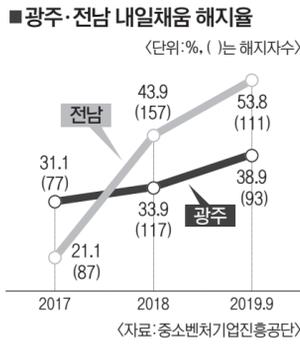
제도 시행 다음 해인 2015년 광주지역

해지율은 10.5%(가입자 199명 중 21명)를 기록한 뒤 2016년 20.9%(205명 중 43명)→2017년 31.1%(247명 중 77명)→2018년 33.9%(345명 중 117명)으로 매년 오름세다. 올해 1-9월에는 가입자 239명의 절반에 가까운 93명이 해지하며 38.9%의 해지율을 보였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2017년 21.1%(411명 중 87명), 2018년 43.9%(357명 중 157명)의 해지율을 기록했다. 올해는 가입자 20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1명이 해지하며 해지율 53.8%를 나타냈다. 특히 전남지역 가입자 수는 2017년 411명에서 2018년 357명, 올해 9월 206명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처럼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에도 광주·전남지역 해지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일하고 싶은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광주지역 한 법무사에 취업했지만 직장이 법인 사업자 자격을 잃으면서 내일채움 가입 9개월 만에 해지 통



보를 받은 정모(28)씨는 "원하는 직종 안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를 지역에서 찾기가 힘들고 고용보험 이력·근로자 수 등 제도 가입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도 광주·전남지역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추가로 도입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업장 수는 광

주 1044개, 전남 977개 등 2021개로 전국의 5%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가입사업장 수는 광주는 전국에서 11번째, 전남은 13번째를 기록했다.

내일채움공제는 핵심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기업적립금에 대한 세액 25%를 공제하고 핵심인력이 만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은 5년간 최대 2000만원 이상 적립할 수 있다.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전체 만기자 955명 9.2%에 해당하는 88명(광주 41명·전남 47명)이 5년 만기금을 타갈 예정이다.

내일채움 가입자 20여 명 가운데 올해 10명의 만기자를 배출한 광주지역 중소기업 (취직금속 박성필 48) 이사는 "지역 청년들이 애사심을 가지고 장기 근속하는데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됐다"며 "올해 목돈을 마련한 직원들은 '내 집 마련' '대출금 상환' '해외여행' 등을 이룬다며 기뻐했고 회사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사, 단체협약 체결

노사실천합의서 이행 다짐

금호타이어는 지난 25일 광주공장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두 차례 부결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끝에 11개월 만에 타결, 이날 조인식과 함께 마무리됐다.

이날 조인식에는 전대진 금호타이어 사장과 김현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황용필 금호타이어 대표지회장, 노사 교섭위원 등이 참석했다.

노사 대표는 단체교섭 약정서에 최종 서명하고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노사는 최종 타결까지 순탄치 않았지만, 향후 경영 정상화와 영업 경쟁력 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노사공동 실천 합의서' 성실 이행을 통해 사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미래

생존 경쟁력 확보, 지속 성장 가능한 공장 실현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고용 보장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공동 실천합의서 이행 ▲단체협약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정 삭제 ▲국내공장 설비투자 ▲성형수당 지급 ▲학자금 조정 등이다.

전대진 금호타이어 사장은 "노사가 서로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서 교섭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앞으로 경영정상화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회사도 공장 가동률을 올리고 판매를 신장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자"고 의지를 다졌다.

황용필 대표지회장은 "이번 교섭을 계기로 내년에는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연다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광주·전남 중기 350곳 참여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350여 개사가 참여하는 일자리 박람회가 온라인에서 열린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일자리박람회 사이트(<http://myjob.jobkorea.co.kr>)에서 회원 가입 후 취업희망 기업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이 사이트를 통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취업 상담사례, 온라인 사전관, 면접 답변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여는 이 박람회는 정보·통신(IT)에 익숙한 청년 구직자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 중소기업의 채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307개사가 참여했으며, 지역인재 13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하반기 박람회는 150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추천기업 채용관을 비롯해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채용관을 별도로 운영한다.

김문환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앞으로도 손쉽게 참여 가능한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오프라인과 병행 추진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고용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풍광수도' 햅쌀 제주 하나로마트 입점

전남 쌀 공동 브랜드 '풍광수도' 햅쌀이 지난 25일 제주시 농협 하나로마트에 올해 처음으로 납품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풍광수도' 햅쌀 출시 기념으로 이날부터 2주 동안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에서 '풍광수도' 구매편 고객에게 달걀 1판(15구)을 증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농협 측은 행사 기간 동안 풍광수도(20kg)를 1000포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동진 단일 품종인 '풍광수도' 생산에는 10개 사·군 11개 농협RPC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7일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 삼성전자 광주사회공헌센터 주최 '2019 삼성 스마트쿡링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공정경쟁을 다짐하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제공〉

"광주형 건강한 한끼 밥상 삼성 가전으로 만들어요"

'삼성 스마트쿡링 페스티벌' 입상자 국제대회 출전권 부여

"삼성 가전과 건강한 식재료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광주형 한끼 밥상'을 만들어요."

삼성전자 광주사회공헌센터는 27일 광주시 남구 광주김치타운 다목적체험관에

서 '2019 삼성 스마트쿡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임직원의 후원금으로 마련했으며, 광주시·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자원봉사센터가 함께 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삼성전자 가전을 이용해 건강한 식재료로 '광주형 한끼밥상'을 차리는 콘셉트였다. 입상자에게는 세계조

리사연맹이 주최하는 '2019 WACS 광주세프 챌린지 국제요리경연대회' 출전권이 부여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함께 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사회공헌 비전을 발표했다. 이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개인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적극 지원해 미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 전기요금, 주요 28개국서 2번째로 저렴

1인당 125원/kWh...IEA 발표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8개국 가운데 2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가별 전기요금'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전기요금은 8.28펜스(약 125원)/kWh(킬로와트시)를 기록했다.

터키의 1인당 전기요금 7.79펜스/kWh

에 이어 28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이들 28개국은 OECD 산하기구인 IEA의 회원국이고, 펜스는 영국 화폐단위로 100펜스가 1파운드이다.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덴마크는 33.06펜스(498원)/kWh로 한국 전기요금의 4배에 달했다.

28개국 평균 전기요금은 15.12펜스(228원)/kWh로 한국의 전기요금은 IEA 조사국 평균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882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수	
18 34 39 43 44 45	23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4,127,270,400	5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78,168,000	44
3 5개 숫자일치	1,651,966	2,082
4 4개 숫자일치	50,000	109,226
5 3개 숫자일치	5,000	1,839,873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